



## 중국경제 60년 평가와 전망

양 평 섭 북경사무소 소장 (psyang@kiep.go.kr, Tel: 86-10-8497-2870)

나 수 엽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syna@kiep.go.kr, Tel: 3460-1072)

1. 중국경제 60년의 시기별 변천
2. 중국경제 60년의 성과와 구조변화
3. 중국경제의 현안과 과제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주요 내용

- ▶ 2009년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신중국) 건국(1949년 10월 1일) 60주년이 되는 해로서, 그동안 중국경제는 경제운영 체제, 경제규모 및 구조, 주민생활 수준 등에서 일대 변화를 거쳐 왔음.
- 특히 1978년 시작된 개혁·개방정책 이후 중국경제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룸.
- ▶ 중국의 국내총생산액은 1952년 679억 위안에서 2008년 30조 670억 위안으로 443배 증가하였으며, 1952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8.1%의 성장률을 달성함.
-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높아져 2007년에는 독일을 제치고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으며, 2010년에는 일본에 앞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됨.
- ▶ WTO 가입(2001년)을 계기로 중국의 대외교역 및 외국인투자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이후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3위 무역대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도국

중 가장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 또한 건국 초기 공업생산의 불모지에서 철강, 석탄, 시멘트, 면직포, TV 등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세계의 공장으로 변모함.
- ▶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시장화 개혁과 개방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였으며, 산업구조와 수출구조가 고도화됨.
- 그러나 중국경제는 급속한 발전 이면에 에너지 부족과 환경파괴, 지역간·계층간 불균형 확대, 인구 노령화와 노동력 공급 약화 등의 과제를 안고 있음.
- ▶ 중국경제의 지속 성장으로 향후 20년 내 중국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기존의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내수 중심의 성장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러한 중국경제 구조의 새로운 변화는 새로운 대중국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중국 시장에 대한 우리의 인식 변화도 필요함.

## 1. 중국경제 60년의 시기별 변천

- 2009년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신중국) 건국(1949년 10월 1일) 60주년이 되는 해로서 그동안 중국경제는 경제운영 체제, 경제규모 및 구조, 주민생활 등에서 일대 변화를 거침.
- 특히 1978년 시작된 개혁·개방정책 이후 중국경제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는바, 중국경제 60년의 시기별 변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살펴 볼 수 있음.

### 가. 1949~56년: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확립

- 건국 후 중국은 정치적으로 정권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사회주의 개조를 추진하여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모델을 확립하였고, 토지개혁(1950년)을 통해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함.
- 이 시기 중국의 경제정책 목표는 낙후된 농업국을 벗어나 선진 공업국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목표 아래 1953년부터 대규모 공업화 건설이 시작됨.

### 나. 1957~66년: 전면적인 사회주의 건설

- 이 시기에는 1953년 시작된 대규모 공업화 건설, 1958~60년의 대약진 운동을 통해 중국경제가 비교적 빠른 성장을 달성하였음.
- 1964년 12월 조우언라이(周恩來) 총리는 경제발전 목표로서 4대 현대화(농업현대화, 공업현대화, 국방현대화, 기술현대화) 목표와 임무를 발표하였으며, 두 단계에 걸쳐 20세기 말까지 공업대국화를 실현한다는 목표도 설정하였음.<sup>1)</sup>

### 다. 1966~78년: 문화대혁명

- 1966년 이후 10여 년에 걸친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중국경제의 성장과 발전은 답보상태에 머물렀고, 이는 절대 빈곤과 기초 생필품 부족으로 이어짐.<sup>2)</sup>

1) 제1단계는 15년간에 걸쳐 독립적인 공업과 국민경제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세계 선진국가 수준에 도달하고, 제2단계를 통해서는 20세기 말에 세계 제일의 공업대국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이었음.  
 2) 1978년 중국 농촌지역의 절대 빈곤 인구는 2억 5,0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0.7%에 달함. 중국 국가통계국 편, 『中國統計摘要 2009』, p. 111 참고.

## 라. 1978년 이후

- 1978년부터 2008년까지의 30년간은 개혁·개방을 통해 대개혁, 대개방, 대발전을 이룬 시기로서 중국경제는 질적·양적 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룸.
- 덩샤오핑(鄧小平)은 1978년 11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 전회에서 개혁·개방을 천명하였으며, 1987년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3차 대표대회에서는 중국경제 발전의 3단계 발전목표(三步走)를 제기하였음.
  - 제1단계(국민총생산 규모 1980년 대비 2배 확대, 인민의 ‘웬바오(溫飽)<sup>3)</sup>’ 문제 해결) → 제2단계(20세기 말까지 다시 국민총생산 2배 확대, 인민생활 수준을 ‘샤오캉(小康)<sup>4)</sup>’ 수준으로 향상) → 제3단계(21세기 중반까지 1인당 GDP를 중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비교적 부유한 사회를 실현<sup>5)</sup>)

표 1. 신중국 이후 중국경제의 주요 사건 일지

일시	주요 경제사건
1950년	토지개혁 단행: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토지를 농민에게 분배
1958년	대약진운동 추진: 사회주의 사회건설과 신속한 경제건설을 목표
1978년	개혁·개방 천명
1980년	경제특구(SEZ) 설치: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산터우(汕頭), 샤먼(廈門)을 경제특구로 지정
1983년	농가책임제(Household Responsibility System) 도입: 각 농가의 잉여생산물을 각자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
1987년	중국공산당 13차 전국대표대회, 중국 사회주의 건설 노선의 이론으로 “하나의 중심, 두 개의 기본점(one central task and two basic points)” 채택 <sup>6)</sup>
1990년	상해증권거래소 설립(11월), 심천증권거래소 설립(12월)
1992년	1992년 중국공산당 14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경제개혁의 목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임을 공식화
1996년	IMF 협정 제8조를 수용하고, 인민폐의 경상거래 태환 허용
1997년	국유기업 개혁 본격 추진: 제15차 전인대에서 대형 국유기업에 대한 주식합작제 개혁 결정
1999년	‘비공유경제’가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주요 부분임을 헌법에 명기
2001년	WTO 가입
2004년	사유재산권 보호조항을 헌법에 명문화
2005년	· 위안화 환율제도 변경(7월): 미달러 페그제 → 복수통화바스켓 제도 · 농업세 폐지(12월): 농민부담 경감, 도농 소득격차 해소
2007년	물권법 시행: 개인의 사유재산권 인정, 사유재산권 보호 규정

자료: 중국망(<http://www.china.org.cn/>) 등 참고

3) 의, 식, 주 등 기본 생계 충족  
 4) 중등 생활 수준  
 5) 제1단계 발전목표는 1987년에 3년 앞당겨 실현하였으며, 제2단계 목표는 1995년에 5년 앞당겨 실현함. 2002년 중국 공산당 제16기 전당대회에서 2020년까지 GDP 규모와 1인당 GDP를 2000년의 4배로 확대하여 ‘전면적 소강사회’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 2. 중국경제 60년의 성과와 구조변화

- 신중국 수립 이후 60년 동안 중국경제에는 국내총생산 및 대외교역 규모 등 양적 성장과 더불어 급속한 구조 변화가 일어남.
- 중국 국가통계국은 신중국 설립 이후 6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국경제에 다음과 같이 8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평가함(표 2 참고).

표 2. 신중국 이후 중국경제의 변화

1.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체질 및 국력의 강화, 국제적 위상 제고
2.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의 풍요(주요 공업제품과 농산품 공급능력 확대)
3. 경제구조 개선(3차산업 비중 상승 등)
4. 인프라와 기초산업의 비약적 발전
5. 대외경제 개방(대외교역 및 외자도입 확대)
6. 일반 주민 생활수준의 비약적 향상
7. 과학기술과 교육의 발전
8. 문화, 위생, 체육, 환경보호 등 사회사업의 근본적 변화 발생(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 지속 추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BS), 『新中国成立60周年经济社会发展成就回顾系列报告之一』.

### 가. 경제규모 확대와 국제적 위상 제고

#### 1) 세계 3대 경제대국 부상

- 신중국 성립 이후,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의 양적 변화는 천지개벽이라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짐.
- 중국의 국내총생산액(GDP)은 1952년 679억 위안에 불과하였으나, 1978년 3,645억 위안(약 1,473억 달러)으로 증가하였으며 2008년에는 30조 670억 위안(4조 3,000억 달러)으로 1952년 대비 443배 증가함.
- 1952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경제는 연평균 8.1%의 성장률을 시현하였으며, 이 중 전반기 30년간은 연평균 6.1%, 개혁·개방 이후 30년간은 연평균 9.8%씩 성장하였음.<sup>7)</sup>

6) 경제발전을 중심과제로 하고, 개혁·개방과 네 가지 기본원칙(사회주의 노선, 인민민주전제정치, 공산당 영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을 견지한다는 내용.

7) 일본과 한국의 전후 30년간(1950~8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한국이 9.1%, 일본이 7.7%였음.

- 이에 따라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높아졌는데,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비중은 1978년 1.7%에서 2008년 7.1%로 높아졌음.
- 그 결과 2007년에는 독일을 제치고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함.

#### 2) 주민 생활수준 향상

-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13억 인민의 생활수준도 대폭 향상되었음.
- 1인당 GDP는 1952년 119위안에서 1978년에는 381위안으로 증가한 데 그쳤으나, 2008년에는 2만 2,698위안(3,292달러)으로 1952년의 191배(실질 32.4배)에 달함.
-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소비구조도 개선되어 1995년 이전 중국 소비자의 엔겔계수는 '월바오(溫飽)' 형인 50~60%선 을 유지하였음.
- 그러나 2008년 현재 도시지역의 경우 '부유' 형으로 분류되는 30%대로 낮아졌고, 농촌지역은 '샤오캉(小康)' 형으로 분류되는 40%대를 유지하고 있음.

표 3. 중국의 GDP 및 소득수준 변화

		1952	1978	1980	1990	1995	2000	2005	2007	2008
GDP	십억 위안	67.9	365	455	1,867	6,079	9,921	18,322	25,731	30,067
	억 달러	-	1,473	1,882	3,546	7,280	11,985	22,359	33,823	43,262
	세계 비중(%)	-	1.7	2.6	1.7	2.5	3.8	5.0	6.2	7.1
	세계 순위	-	10	11	11	8	6	4	3	3
	세계성장 기여율	-	-	-	-2.7	5.7	13.5	9.4	10.3	-
소득 수준 (위안)	1인당 GDP	119	381	463	1,644	5,046	7,858	14,053	19,524	22,698
	1인당 GDP (달러)	-	225	313	341	601	946	1,715	2,560	3,292
	도시 가처분 소득	100	343	478	1,510	4,283	6,280	10,488	13,786	15,781
	농민 순수입	44	134	191	686	1,577	2,253	3,255	4,140	4,761
엔겔 계수 (%)	도시	-	57.5	56.9	54.2	50.1	39.4	36.7	36.3	37.9
	농촌	-	67.1	61.8	58.8	58.6	49.1	45.5	43.1	43.7

자료: 『중국통계적요 2009』; Worldbank 데이터.

### 3) 세계 3대 무역대국 부상

■ 개혁·개방 이전 중국은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수입대체 공업화 전략을 실행하였고, 무역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일부 국영 무역기업의 독점 아래 행해짐.

■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초기 10여 년간 대외무역체제 개혁과 더불어 교역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8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섬.

- 1994년 대외무역관리제도 개혁, 외환관리제도 개혁 등 무역 환경이 대폭 개선되면서 2001년에는 5,000억 달러를 초과함.

- 특히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으로 전면적인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무역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는 2조 달러를 돌파함.

■ 세계의 상품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도 높아짐.

- 중국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8년 0.6%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8.0%로 상승하였으며 2004년 이후에는 세계 3위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함.

표 4. 중국의 대외경제지표 변화

(단위: 십억 달러)

		1952	1978	1980	1990	1995	2000	2005	2007	2008
무역액	금액	2,37	21	38	115	281	474	1,422	2,175	2,562
	비중 (%)	-	0.6	-	1.6	2.7	3.6	6.7	7.7	8.0
	세계 순위	-	29	25	11	8	8	3	3	3
수출	금액	1.02	9.8	18.1	62.1	148.8	249.2	762.0	1,218.6	1,428.5
	세계 순위	-	28	28	14	12	7	3	2	2
수입	금액	1.35	10.9	20.0	53.3	132.1	225.1	660.0	956.0	1,133.1
	세계 순위	-	27	22	14	12	7	3	3	3
외환 보유	금액	0.14	0.17	-1.30	11.09	73.6	165.6	818.9	1,528.2	1,946.0
	순위	-	40	37	7	2	2	2	1	1

자료: 『중국통계적요 2009』.

### 4) 외국인투자 유치와 중국경제

■ 중국은 방대한 시장, 저임금 노동력,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으로 개도국 중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국가임.

- 유엔개발기구(UNCTAD)에 따르면 1980년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액은 5,700만 달러에 불과하였음.

- 그러나 연해지역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지고 외국인투자 유입이 확대된 결과 1984~91년 중 연평균 26억 9,000만 달러 규모의 외국인투자 유치가 이루어짐.

- 특히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이후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부분적인 개방으로 다국적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증가하면서, 1992~2001년 기간 중에는 연평균 370.2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짐.

- 또한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내수시장 진출 제한 대폭 완화와 서비스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으로 2002~08년에는 연평균 719.7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에 이룸.

표 5.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현황

	누계 FDI 이용액 (억 달러)	연평균 FDI (억 달러)	FDI/GDP평균
제1단계 (1979~83년)	18.02	3.6	0.46
제2단계 (1984~91년)	215.4	26.9	0.73
제3단계 (1992~2001년)	3,701.68	370.2	4.69
제4단계 (2002~08년)	5,038.2	719.7	2.86

자료: 『중국통계적요 2009』;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2008).

### 5) 세계의 생산공장

■ 개혁·개방 이후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중국이 공업생산의 불모지에서 세계의 생산공장으로 변모했다는 점임.<sup>8)</sup>

표 6. 주요 공산품 생산량과 중국의 순위

	단위	1978년		2000년		2007년		2008년	
		생산량	순위	생산량	순위	생산량	순위	생산량	순위
원 유	만 톤	10,405	8	16,300	5	18,632	5	18,973	5
발전량	억KWH	2,566	7	13,556	2	32,816	2	34,669	2
조 강	만 톤	3,178	5	12850	1	48,929	1	50,092	1
석 탄	만 톤	61,800	3	129,900	1	252,600	1	279,300	1
시멘트	만 톤	6,524	4	59,700	1	136,117	1	140,000	1
화학비료	만 톤	869	3	3,186	1	5,825	1	6,013	1
면직포	억M	110	1	277	2	675	1	710	1
컬러TV	만 대	0.4	8	3,936	1	8,478	1	9,033	1
자동차	만 대	14.9	-	207	8	889	3	935	3

자료: 『중국통계적요 2009』 등.

8) 18세기에서 20세기 초반까지 100여 년간 영국이 세계의 생산공장 역할을 담당하였고, 20세기 초반부터 1970년대까지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일본이 그 역할을 담당해 왔음.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중국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중국은 철강, 석탄, 시멘트, 면직포, TV의 생산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자전거, 전지, 맥주, 의류, 방직품 등 100여 종의 경공업 제품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1978년 3,178만 톤에서 1996년 1억 톤을 넘어서 세계 1위 생산국이 되었으며, 2008년에는 5억 톤을 넘어섬.
- 컬러TV 생산량은 1978년 4,000대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9,033만 대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생산량은 1978년 14.9만 대에서 2008년에는 935만 대로 증가함.

**나. 경제구조의 변화**

**1) 경제체제 변화: 사회주의 시장경제**

- 중국경제체제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중국이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했다는 것임.
- 중국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30년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을 밟고 있음.
- 중국경제의 시장화 개혁은 소유제도의 변화에서 그 성과를 찾아볼 수 있음.
- 60년 전 중국은 구소련을 따라 계획경제체제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 국내생산의 99%를 공유제기업이 담당하였음.
- 그러나 공산당 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 정책을 표방하면서 공유제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소유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이후 비공유제 경제가 급속히 성장함.
- 그 결과 2008년 현재 중국 내 사영기업과 개체공상호(개인기업)의 수가 각각 657만 개와 2,917만 개에 이룸.
- 또 다른 시장화 성과는 가격개혁으로 나타남.
- 1970년대 말까지 중국은 극히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국가가 가격을 지정하여 왔으나, 1992년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구축 목표 설정 이후 대대적인 가격개혁을 단행함.
- 이에 따라 1978년에는 대부분의 상품 가격을 국가가 지정한 반면, 2006년에는 생산재의 92.1%, 소매상품의 95.3%, 농산품의 97.1%가 시장가격으로 결정됨.

표 7. 중국의 가격결정 중 시장가격이 차지하는 방식 변화

(단위: %)

구 분		1978	1991	1995	2003	2005	2006
생산재	시장가격	0	46	78	87.3	91.9	92.1
	국가지도가격	0	18	6	2.7	2.2	2.3
	국가지정가격	100	36	16	10	5.9	5.6
소매상품	시장가격	3	69	89	96.1	95.6	95.3
	국가지도가격	0	10	2	1.3	1.7	1.9
	국가지정가격	97	21	9	2.6	2.7	2.8
농산품	시장가격	6	58	79	96.5	97.7	97.1
	국가지도가격	2	20	4	1.6	1.1	1.7
	국가지정가격	92	22	17	1.9	1.2	1.2

자료: OECD(2009), *OECD Reviews of Regulatory Reform: China*, p. 48 등.

**2) 개방형 경제로의 전환**

- 개혁·개방 이전 중국은 자급자족을 위한 공업화 전략을 추진하는 폐쇄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었음.
-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통한 부분적인 개방,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이후 개방 확대, 2001년 WTO 가입 이후 전면적 개방 단계를 거쳐 시장을 개방해 왔음.
- 중국경제의 대외개방은 대외의존도와 해외부문에 의한 성장 의존 구조를 심화시킴.
- 1970년대 말 10%에도 미치지 못했던 대외의존도는 2006년 66.5%까지 상승함.
- 경제성장률에 대한 순수출의 기여율은 1980년 1.8%에서 개혁·개방 이후 1985~90년 기간에는 50% 이상으로 상승함.

표 8. 중국의 경제성장 기여율 및 대외의존도

연도	최종소비		자본형성		순수출		대외의존도	
	기여율 (%)	기여도 (%p)	기여율 (%)	기여도 (%p)	기여율 (%)	기여도 (%p)	수출입/GDP (%)	수출/GDP (%)
1952	-	-	-	-	-	-	9.5	4.0
1978	39.4	4.6	66.0	7.7	-5.4	-0.6	9.7	4.6
1980	71.8	5.6	26.4	2.1	1.8	0.1	12.5	6.0
1985	85.5	11.5	80.9	10.9	66.4	-8.9	22.9	9.0
1990	47.8	1.8	1.8	0.1	50.4	1.9	29.8	16.0
1995	44.7	4.9	55.0	6.0	0.3	0.0	38.7	20.5
2000	63.8	5.4	21.7	1.8	14.5	1.2	39.6	20.8
2005	38.2	4.0	37.7	3.9	24.1	2.5	63.8	34.2
2006	38.7	4.5	42.0	4.9	19.3	2.2	66.5	36.6
2007	40.6	5.3	39.7	5.1	19.7	2.6	64.8	36.3
2008	45.7	4.1	45.1	4.1	9.2	0.8	59.8	33.3

자료: 『중국통계연감 2008』, 『중국통계적요 2009』 등.

- 또한 중국은 자본 형성, 수출시장 확보, 고용 확대, 제조기술 도입의 중요한 수단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이용하였음.

- 외국인투자는 개혁·개방 초기 투자자본 부족을 보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는데, 1983~2008년 기간 중 중국의 전체 고정자산투자 중 7.4%가 외국인투자에 의해 이루어졌음.
- 외국인투자는 중국 고용 확대의 중요한 수단이었음.
- o 도시지역 취업자 중 외국인투자 기업에 취업한 인원은 1985년 6만에서 2008년에는 4,552만 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도시취업자의 15.1%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 수출에서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4.0%에서 2006년에는 58.2%까지 확대되었으나,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임.

표 9. 외국인투자 기업과 중국경제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투자 (억 달러)	외자 이용액	19.6	34.9	375.2	407.1	724.1	727.2	835.2	1,083.0
	비중(%)*	2.3	3.7	15.7	10.2	6.7	5.3	4.6	4.4
도시 취업자 (만 명)	외자기업	6	66	513	643	1,245	3,808	4,213	4,552
	비중(%)	0.05	0.39	2.69	2.78	4.56	13.45	13.95	15.1
수출액 (억 달러)	외자기업	5.82	78.1	468.8	1,194	4,441	5,638	6,954	7,906
	비중(%)	4.04	12.6	31.5	44.9	47.9	58.2	57.1	55.3

주: 외자이용액/고정자산투자액 비중임.  
 자료: 『중국통계적요 2009』;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2008』.

### 3) 산업구조 변화

- 중국은 성립 당시 농업 중심 국가였으나, 모택동 시대의 공업화 전략 추진으로 점차 2차산업, 특히 광공업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되었음.
- 1952년 GDP에서 1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상회하였으나, 1978년에는 28.2%까지 하락하였으며, 2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0.9%에서 47.9%로 높아짐.
- 개혁·개방 이후에는 공업화와 더불어 서비스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음.
- o GDP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2년 28.6%에서 1978년에는 23.9%로 낮아졌으나, 2005년 이후에는 40%를 넘어서고 있음.
- 공업 전략에서는 중국경제의 중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개혁·개방 이전 중화학 공업화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경공업과 중공업 간의 발전격차가 확대됨.

- 1952~78년간 중국 공업생산 중 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5.5%에서 56.9%로 상승하였음.
- 경공업 비중은 1990년대에 49%선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개혁·개방 이후 국내 생필품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경공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결과임.
- 1990년대 후반부터 다시 중공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면서 2000년 이후 중공업 비중이 급상한바, 2008년에는 전체 공업생산에서 중공업이 70.6%를 차지하고 있음.

표 10. 중국의 산업 및 공업 구조 변화

연도	GDP 구성 변화(%)				공업총생산 구성(%)	
	1차산업	2차산업	(광공업)	3차산업	경공업	중공업
1952	50.4	20.9	17.6	28.6	64.5	35.5
1978	28.2	47.9	44.1	23.9	43.1	56.9
1980	30.2	48.2	43.9	21.6	47.2	52.8
1985	28.4	42.9	38.3	28.7	47.4	52.6
1990	27.1	41.3	36.7	31.5	49.4	50.6
1995	20.0	47.2	41.0	32.9	47.3	52.7
2000	15.1	45.9	40.4	39.0	39.8	60.2
2005	12.2	47.7	42.2	40.1	31.1	68.9
2006	11.3	48.7	43.1	40.0	30.0	70.0
2007	11.1	48.5	43.0	40.4	29.5	70.5
2008	11.3	48.6	42.9	40.1	29.4	70.6

자료: 『중국통계적요 2009』; 『중국공업경제통계연감 2008』.

### 4) 수출구조 변화

- 수출상품 구조에 있어서도 중공업화, 하이테크화,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전되었음.
- 중국 전체 수출에서 1차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8년 53.5%에서 2008년 5.4%로 낮아진 반면, 공산품 비중은 46.5%에서 94.6%로 높아졌음.
- 수출상품의 하이테크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 전체 수출에서 하이테크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4%에서 2007년에는 31.8%로 상승함.
- 중국 산업의 서비스화가 이루어지면서 서비스무역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음.
- o 중국의 서비스 무역액은 1982년 45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3,060억 달러로 68배 증가하였고, 중국이 전 세계 서비스 무역의 4.25%를 차지하고 있음.

- 서비스 수출액은 같은 기간 25억 달러에서 1,471억 달러로 증가함.
- 한편 중국의 무역은 가공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역흑자 확대에 통상마찰이 확대되고 있음.
- 중국의 수출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2년 5.1%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55.2%까지 확대됨.
- 2004년 이후 중국정부가 가공무역을 규제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면서 가공무역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중국의 무역수지 확대에 주요 교역대상국가인 미국, EU 등과의 무역마찰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중국 무역의 지속적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

표 11. 중국 수출구조 변화

(단위: %)

연도	수출상품 구성		공산품 수출 구성					가공 무역 비중	서비스 수출액 (달러)
	1차 상품	공산품	화학	섬유	기계 운송장비	잡제품	미분류		
1978	53.5	46.5	2.4	-	3.4	-	-	-	-
1980	50.3	49.7	6.2	22.1	4.7	15.7	1.1	*5.1	-
1985	50.6	49.4	5.0	16.4	2.8	12.8	12.5	12.1	25
1990	25.6	74.4	6.0	20.3	9.0	20.4	18.7	40.9	59
1995	14.4	85.6	6.1	21.7	21.1	36.7	0.0	49.5	191
2000	10.2	89.8	4.9	17.1	33.2	34.6	0.1	55.2	304
2005	6.4	93.6	4.7	17.0	46.2	25.5	0.2	54.7	744
2006	5.5	94.5	5.4	18.0	47.1	24.6	0.3	51.0	920
2007	5.1	94.9	5.0	18.1	47.4	24.4	0.2	50.7	1,222
2008	5.4	94.6	5.6	18.3	47.1	23.4	0.1	47.3	1,471

주: \* 1982년 수치임.

5) 지역경제 변화

- 신중국 성립 이후부터 개혁·개방 이전까지 중국은 '삼선(三線)건설'로 대표되는 내륙 중심의 투자 및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하여 왔음.<sup>9)</sup>
- 이에 따라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경제성장은 연해지역과 중서부 지역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졌고, 1952년부터 78년까지 동부지역과 내륙지역이 중국의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음.

9) 삼선지역은 운남, 섬서, 감숙, 영하, 하남, 호북, 호남, 산서 등 11개 성 지역을 의미함. 1952년부터 75년 기간 동안 중국 기본건설 투자의 55%가 내륙지역에 투자되었으며, 40%만이 연해지역에 투자되었음. 특히 삼선지역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40%를 차지하였음(高新才 편 2008, 『中國經濟改革 30年: 區域經濟卷』, p. 96).

- 개혁·개방 이후부터 1990년대 말까지는 연해와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불균형 발전전략이 추진되었음.
-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경제특구, 연해개방도시, 연해 경제개방구, 연강 경제구, 내륙 중심 도시, 철도와 고속도로의 연선 및 국경 연변 지대로 이어지는 다층적인 지역개방 전략을 추진하여 왔음.
- 그 결과 연해지역과 내륙지역 간, 동부·중서부지역 간 발전격차가 확대되었음.
- GDP에서 연해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8년 52.5%에서 2006년에는 61.7%로 늘어난 반면, 중서부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47.5%에서 38.3%로 낮아짐.

표 12. 중국 GDP의 지역별 분포 변화

(단위: %)

	1952	1978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동부	51.6	52.5	52.2	52.8	54.9	58.4	60.4	61.7	61.7	61.4	60.6
중부	31.3	29.1	29.6	29.1	28.6	26.1	24.4	23.4	23.2	23.4	23.8
서부	17.1	18.4	18.2	18.1	16.5	15.5	15.2	14.9	15.0	15.2	15.6

자료: 『중국통계적요 2009』; 개혁·개방 30년통계자료회 편, 『數字中國三十年』.

- 1990년대 말에는 연해지역과 내륙지역 간의 협조 발전을 통한 발전격차 완화 및 시너지효과 극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따라 1999년에는 서부대개발전략, 2003년에는 동북노공업기지 개조 계획, 2006년에는 중부굴기 전략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되고 있음.

표 13. 중국의 지역발전 전략 변화

기간	전략 중점	주요 개방 및 지역발전 전략
개혁·개방 이전	내륙 중심 투자전략	삼선건설(1965)
1980년대	非均衡發展戰略 동부지구 중점 개발	경제특구(1979), 연해개방도시(1984), 장강과 주강삼각주(1985) 포동 개방(1990)
1990년대	協調發展戰略 효율우선, 공평성 고려 서부지구 중점 개발	연선·연강·연변·내륙 중심 도시 개방(1991~92) 지역경제협조발전, 지역발전 격차 축소(<9.5 및 2010년 중장기 발전규획>)
2000년 이후	統籌區域發展 동·중·서, 동북 중점	서부대개발 전략 (1999), 중부굴기(2006. 4) 동북노공업기지 개조(2003) 빈해신구 개발(2006)

- 이러한 지역간 균형발전 전략 추진을 통해 2006년을 기점으로 중서부지역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

### 3. 중국경제의 현안과 과제

#### 가. 에너지 부족과 환경파괴

- 중국의 산업발전 과정에서 노정된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중국의 성장이 에너지 다소비형과 환경오염 유발형이었다는 점임.
- 중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에너지 부족국가로 전환되었으며, 세계 석유소비의 10% 정도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2010년에 이르면 석유, 천연가스, 알루미늄, 철, 동, 황금 등 주요 광물자원의 국내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되고, 2020년에는 심각한 공급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됨.<sup>10)</sup>

-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석유소비는 5억 톤에 달하는 반면, 국내생산은 201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1.10억 톤이 될 전망으로, 연간 4.04억 톤의 수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측됨.

표 14. 중국의 에너지 수급 현황

		1978	1980	1990	1995	2000	2005	2007	2008
에너지 (백만 표준탄)	생산	628	637	1,039	1,290	1,290	20,59	2,354	2,611
	소비	571	603	987	1,312	1,386	2,247	2,655	2,856
	과부족	57	34	56	-22	-96	-188	-301	-245
석유 (백만 톤)	생산	-	105.9	138.3	150.1	162.6	180.8	186.7	189.7
	소비	-	87.6	114.9	160.6	223.6	327.8	368.0	-
	과부족	-	18.3	23.4	-9.5	-41.0	-147.0	-181.3	-
원유대외의존도(%)		-	-	-	-	31.33	43.27	48.00	49.4
중국/세계석유 소비(%)		-	-	-	5.21	6.28	8.52	9.31	-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편, 『中國統計摘要2009』 등.

#### 나. 지역간·계층간 불균형 확대

- 중국경제의 불균형 문제는 연해지역과 내륙지역 간 발전격차,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 계층간 소득격차 등 3대 격차로 나타나고 있음.

#### ■ 연해지역과 중서부지역 간의 발전 및 소득 격차의 확대

10) 白永秀 編(2008), 『中國經濟改革 30年:資源環境卷』, pp. 54~56.

- 중국의 최고 소득지역인 상하이(上海) 시와 최저 소득지역인 구이저우(貴州) 성 간의 1인당 GDP 차이는 1990년 7.3배에서 2000년에는 11.3배까지 확대되었음.

- 중국의 중서부지역 투자 확대로 격차가 축소되고는 있으나 2008년 현재 8.3배로 여전히 큰 격차를 유지하고 있음.

#### ■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 확대

- 도시 가처분소득/농촌 순수입 비율은 1978년 2.57배에서 2007년에는 3.33배까지 확대되었음.

#### ■ 계층간 불균형 심화

- 중국의 지니계수는 1970년대 말 0.2 수준에서 2000년에는 경제수준인 0.40을 넘어섰으며, 2007년에는 0.5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표 15. 중국의 3대 격차 변화

		1978	1985	1990	1995	2000	2005	2007	2008
소득 격차 (위안)	상해시 1인당 GDP(A)	2,485	3,811	5,911	17,779	30,047	52,060	66,367	73,124
	귀주성 1인당 GDP(B)	175	420	810	1,853	2,662	5,222	6,835	8,824
	A/B(배)	14.2	9.1	7.3	9.6	11.3	9.8	9.7	8.3
노동 격차 (위안)	도시가처분 소득(A)	343	739	1,510	4,283	6,280	10,493	13,786	15,781
	농민순수입(B)	134	398	686	1,577	2,253	3,255	4,140	4,760
	A/B(배)	2.57	1.86	2.20	2.71	2.79	3.22	3.33	3.32
지니 계수	농촌	0.21	0.23	0.31	0.34	0.35	0.38	0.37	-
	전국	-	-	-	0.39	0.42	-	0.5	0.47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편, 『中國統計摘要 2009』, p. 108.

#### 다. 인구 노령화와 노동력 공급 약화

- 중국의 경제성장은 노동력의 투입 확대를 통해 이루어져 왔고 할 수 있으나, 1970년대 중반 계획생육제도를 실시한 이후 인구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어 노동력 공급 증가속도가 떨어지고 있음.

- 2008년 기준 중국의 인구 자연증가율은 0.5%의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35년 기간 중 중국의 인구가 최대에 달하고 이후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sup>11)</sup>

11) 중국의 총 인구는 2020년 14.4억 명, 2035년 14.7억 명에 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에는 14.4억 명으로 줄어들 전망임. 2050中國能源和碳排放研究課題組 편(2009), 『2050中國中國能源和碳排放報告』, p. 652.

- 인구 노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임금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노동 투입에 의한 성장이 제한을 받게 될 것임.
- 중국 노동력의 인력구조에 있어서도 2010년을 정점으로 노동연령(15~65세) 인구 비중은 하락하기 시작하고, 노령인구(60세 이상) 비중은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sup>12)</sup>
- 이러한 인구의 노령화는 노동력 공급의 축소는 물론 사회보장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중국의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sup>13)</sup>

을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음.

- 2003년 골드만 삭스에 따르면 중국이 2015년에는 일본을, 그리고 2039년에는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 또한 2008년 카네기재단의 중국경제 전문가인 앨버트 키델(Albert Keidel)은 2030년 중국이 미국경제를 추월하고, 2050년에는 미국의 두 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sup>14)</sup>
- 국제통화기금(IMF)은 2010년 중국의 GDP가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였음.<sup>15)</sup>

표 16. 중국 인구, 연령별 인구

	1978	1980	1990	1995	2000	2005	2007	2008
인구 (A, 만 명)	96,259	98,705	114,333	121,121	126,743	130,756	132,129	132,802
인구자연 증가율(%)	1.20	1.187	1.439	1.055	0.758	0.589	0.517	0.508
65세 이상 인구 비중(%)	-	4.9*	5.6	6.7	7.1	7.7	8.1	8.3
취업자 수 (B, 만 명)	40,152	42,361	64,749	68,065	72,805	75,825	76,990	77,480
(B/A, %)	41.7	42.9	56.6	56.2	57.5	58.0	58.3	58.3
직공 평균 임금(위안)	615	762	2,140	5,500	9,371	18,364	24,932	29,229

주: \* 1982년 기준 통계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편, 『中國統計摘要 2009』, pp. 39~47.

-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2009년 또는 2010년 중에 중국이 일본을 넘어서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함.
- 중국사회과학원의 왕젠화(王振華) 박사는 중국경제가 향후 8%씩 성장하고, 미국, 일본, 유럽 경제가 각각 2%씩 성장할 경우 2018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 세계 1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측함.<sup>16)</sup>
- 또한 최근 중국의 환추스바오(環球時報)가 세계 80여 명의 저명 학자를 대상으로 '중국 경제규모가 미국을 따라잡기 까지 필요한 시간'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55명이 향후 20년 이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음.<sup>17)</sup>

##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가. 세계 최대 경제대국 부상 가능성

- 중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으로 향후 20년 내 중국이 일본,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09년과 2010년 중에는 일본에 앞서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며,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
-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는 2030년대에 들어서야 중국이 미국

### 나. 중국경제 성장 시나리오

- 향후 중국경제의 지속성장 가능 여부는 국내적인 제약요인과 대외경제의 불안요인들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 여하에 의해 결정될 것임.
- 특히 대내적으로 노동력 공급의 지속 가능성, 생산성 향상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음.

12) 중국의 노동연령(15~65세) 인구 비중은 2010년 70.7%를 정점으로 하락하여 2020년에는 68.2%까지 하락할 것이며, 노령인구(60세 이상) 비중은 2000년 10.4%에서 2010년에는 12.6%, 2020년에는 16.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張玉台 편, 『中國2020:發展目標和政策方向』, p. 59.

13) 1978~2003년 기간 중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공헌도를 살펴보면 자본투입 확대가 63.2%, 노동투입 확대가 10.6%, 생산성 향상이 26.2%를 차지함. 張玉台 편, 『中國2020:發展目標和政策方向』, p. 51.

14) Albert Keidel(2008. 7), "China's Economic Rise-Fact and Fiction,"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Policy Brief 61*, pp. 1-15.

15)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09.4)에 따르면 2010년에 중국 GDP가 5조 3,000억 달러로 일본 GDP 4조 7,000억 달러를 앞설 것으로 전망.

16) 李慎明 편(2009), 『美元霸權與經濟危機:昨天對今天經濟危機的預警』, p. 259.

17) 18명은 10여 년 이내, 37명은 20여 년, 14인은 30년 이내, 6인 30년 이상, 2인은 미국을 초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하였음(『環球時報』 2009. 8. 14, 17면).

- 이에 따라 인구, 노동력 증가, 생산성 변화 등 외생변수의 변화에 따라 중국의 중장기 성장 시나리오를 크게 3가지로 구성하여 살펴 볼 수 있음.<sup>18)</sup>
- 첫째, 표준적인 시나리오로서 과거와 같이 농업노동력의 비농업분야로 이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과거와 같은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진다는 전제조건임.
- 둘째, 조화로운 발전 시나리오는 표준 시나리오에 비해 서비스분야에서 생산성이 향상되는 경우임.
- 셋째, 리스크 시나리오는 노동력 공급에 있어 제약이 발생하고 생산성 향상에도 실패하는 경우의 시나리오임.

표 17. 중국경제의 중장기 성장 시나리오

시나리오	전제조건	경제성장률 전망
표준 시나리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노동력의 비농업으로 빠른 이전</li> <li>• 기술진보의 편향성 및 중간투입물 변화는 외생변수</li> <li>• 모든 요소생산성(TFP) 과거 25년 평균 수준(2.0%~2.5%) 유지</li> </ul>	2001~20: 8.5% 2001~08: 10.2% 2009~10: 7.3%
조화발전 시나리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 시나리오를 기초로 각 산업 조화로운 발전 추진</li> <li>• 서비스업 TFP의 성장률은 표준 시나리오를 기초로 2005~10년 간 매년 1%p 빠르고, 2010~20년 간 매년 0.5%p 빠름.</li> <li>• 표준 시나리오를 기초로 에너지 이용 효율 0.2~0.5%p 제고</li> <li>• 농업노동력의 비농업으로 빠른 이전</li> </ul>	2001~20: 8.9% 2001~08: 10.2% 2009~10: 8.0%
리스크 시나리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이전 속도 저하</li> <li>• 주민의 저축성향을 표준 시나리오 보다 저하</li> <li>• 정부소비의 증가 속도 저하</li> <li>• 모든 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과거 25년의 평균 수준보다 1%p 낮은 수준(1.5%~2.0%) 유지</li> </ul>	2001~20: 7.5% 2001~08: 10.2% 2009~10: 5.7%

자료: 王夢奎 편(2006), 『中國中長期發展的重要問題 2006-2020』, p. 81.

- 각 경우의 시나리오를 감안할 때 중국경제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최저 5.7%에서 최고 8.9%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sup>19)</sup>

18) 본 논문의 중국경제 시나리오는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의 중장기발전 시나리오를 기초로 재구성하였음. 張玉台 편, 『中國 2020: 發展目標和政策方向』, pp. 64~92.

19) 중국 내 다른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음. 2000년 왕샤오루(王小魯) 등의 연구에서는 2011~20년 기간 중 연평균 6.21%의 성장을 예측하였고, 린이푸(林毅夫) 등의 연구에서는 2004~14년 8.56%, 2014~24년 중 7.08%의 성장을 예측하였음. 王小魯 樊綱(2000), 『中國經濟增長的可持續性』; 林毅夫 등 (2003), 『中國經濟的增長與展望』.

- 이러한 성장 시나리오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경제규모는 2000년의 4.2~5.5배로 증가하고, 1인당 GDP 규모 역시 최소 3,150달러에서 최대 4,114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다. 대중국 진출에 대한 시사점**

- 신중국 수립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중국경제는 향후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함과 동시에 투자와 수출에 의존한 기존의 성장패턴에서 벗어나 내수 중심의 성장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해외부문(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하락함으로써 내수시장에 기반한 성장전략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중국 순수출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변화:  
2007년 2.6%p → 2008년 0.8%p → 2009년 상반기 -2.9%p

- 이러한 중국경제 구조의 새로운 변화는 새로운 대중국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중국 시장에 대한 우리의 인식 변화도 필요함.

- 1인당 GDP 3,000달러 시대에 진입함으로써 내수시장 성장, 소비 대중화, 서비스 수요 확대, 도시화, 환경 및 신에너지 수요 증가 등 신산업의 성장 시대에 부합하는 진출전략 모색이 필요함.

- 제조업 분야에서는 기존의 조립공정에서 벗어나 부품과 소재분야의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LED-TV, 휴대폰,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등 디지털 가전제품 역시 소비 대중화의 효과가 기대되며, 자동차부품, 패널, 배터리, 에틸렌, 자동차용 및 조선용 강판 등 핵심 부품과 소재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소득 향상, 도시화, 서비스 산업화 등의 환경 변화에 맞는 서비스 분야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 관련 서비스(자동차 A/S, 자동차 보험, 자동차 금융 등), 물류 증대에 따른 적하 보험, 유통 관련 서비스, 관광 서비스 수요 확대가 기대됨.

- 인터넷 시대의 도래, 청장년의 주력 소비층 진입 등으로 중

국 소비자의 구매 방식이 변화되면서 TV 홈쇼핑, 온라인 쇼핑 등도 기회가 커진 분야임.

- 신산업 육성에 따른 환경, 에너지 절감, 바이오 관련 사업 역시 유망분야가 될 것임.
- 환경관련 설비, 풍력 및 태양열 발전 등 신에너지 관련 산업, 저탄소 성장 관련 산업 및 CDM, 바이오 산업(바이오 디젤, 식물성 단백질, 바이오 식품 등) 등임. **KIEP**